



전북대는 지난 13일 이남호 총장을 비롯한 대학 보직자들과 시공사, 인근 마을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옛 학군단 자리에 들어서게 될 국제컨벤션센터의 첫 삽을 떴다

# 전북대 한옥형 국제컨벤션센터 '첫 삽'

### 대학뿐 아니라 지역 대규모 행사 윈스톱 해결 공간 450명 한 번에 수용 가능한 컨벤션홀 등 첨단 시설

국제 학술대회 등 지역의 대규모 행사를 윈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에 들어선다.

전북대는 지난 13일 이남호 총장을 비롯한 대학 보직자들과 시공사, 그리고 인근 마을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옛 학군단 자리에 들어서게 될 국제컨벤션센터의 첫 삽을 떴다고 15일 밝혔다.

생태·자연경관이 우수한 옛 학군단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는 187억6천만 원의 국비가 투입돼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면적 6,008㎡, 건축면적 969.3㎡ 규모에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로 건립된다.

이곳에는 450명을 한 번에 수용해 국제 학술행사 등을 치를 수 있는 대형 컨벤션홀을 비롯해 중소 규모의 11개 세미나실, 영빈관, 레스토랑,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규모뿐 아니라 중소 규모의 행사 등도 모두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대형 국제 행사 등 지역의 큰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했던 전북 지역에도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모자형 건물 배치로 넓은 마당을 확보하고 있고, 사방을 둘러싼 모든 건물들이 한옥으로 지어져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의 브랜드와도 공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주변에 건지산이 둘러싸고 있는 전체의 생태와 경관 등의 환경적

조건도 한옥형 건물의 고즈넉함과 어울려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 전북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남호 총장은 "전북대의 숙원이었던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은 지역의 대규모 행사를 윈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수회관과 대학가족의 종합복지센터 기능까지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 컨벤션센터는 아름다운 생태 경관과 어울려 전 세계인을 매료시킬 유라대학만의 컬트 브랜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호원대학교가 지난 14일 교내 5동 대강당에서 제32회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 호원대, 2017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 32개 학부 학사 학위자 120명 배출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지난 14일 교내 5동 대강당에서 제32회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학부모를 포함한 내·외빈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2개 학부(과) 120명의 학생이 학사학위를 수여받았다.

학위별로는 ▲공학사 8명, ▲경영학사 4명, ▲경찰학사 1명, ▲관광학사 12명, ▲교육학사 3명, ▲미술학사 1명, ▲미용예술학사 1명, ▲사회복지학사 7명, ▲소방행정학사 4명, ▲예술학사 50명, ▲이학사 15명, ▲작업치료학사 6명, ▲체육학사 7명, ▲행정학사 1명 등이다.

또 필홍연(경영학과 4학년, 산동성 영성)·학생 등 중국유학생 3명도 함께 학위를 수여받았다.

필홍연 학생은 "처음엔 낯설고 적응하기 어려워 고민이 많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움주셨던 학교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 덕분에 큰 탈 없이 학교생활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학교에서 배운 많은 지식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인재가 되겠다고 전했다."

강희성 총장은 축사를 통해 "항상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며, 긍정적인 생각은 미래를 바꾸는 기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며, 사회로 나아가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우리 졸업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밝게 빛나는 호원인이 되기를 바란다. "며 졸업생들의 학위수여를 다시 한 번 축하했다."

/김재훈 기자

## 원광대, 교사 특수분야 직무연수 성료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속에 전라북도교육청 특수 분야 직무연수 '글로벌 시대의 식생활' 과정을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교내 승산기념관에서 진행했다.

초·중등교사 4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 이 과정은 사범대학과 공자학원,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이루어졌으며, 현지 교사의 식생활 교육 경험이 교육 과정에 포함돼 관심을 끌었다.

개강식에는 연수과정운영위원을 비롯해 조명현 원광대 교원연수원장 겸 사범대학장, 진명서 공자학원장이 참석해 연수 참가자들을 격려했으며, 특히 이번 연수에는 초·중등학교 교장 11명이 참여해 주목을 받았다.

식생활교육 강의와 식생활 체험으로 구성된 '글로벌 시대의 식생활' 교육 과정은 식생활교육 지원법과 외국의 식생활교육,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 정책,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나타난 한국인의 식생활, 중국 교수가 바라본

중국 식생활과 한국 식생활 비교 등의 강의를 펼쳐졌다.

또한, 중국, 일본,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다문화 결혼 이민자 가정의 식생활을 주제로 한 강의와 함께 현지 교사의 다문화 학생 식생활 지도 사례, 학교 현장의 글로벌·다문화 식생활 적용 방안 모색 등이 이어졌다.

한편, 식생활 체험은 농축산식품부 지정 우수 마을에서 우리밀 제분소를 견학하고, 우리밀 케이크 만들기 실습을 비롯해 전통문화원에서 한복 입기 및 전통 예절 익히기 실습도 진행했다.

식생활교육기관 대표 박은숙(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는 "열심히 연수에 임하는 선생님들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참된 교육자를 만나는 기쁨이 크다"며, "이번 연수가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다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 7월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만족도 74.4%

전북도교육청의 2018년 7월 지방공무원 정기인사에 대한 만족도가 74.4%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13~23일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7월 정기인사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4.4%가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2.1%, '불만족'은 3.5%에 그쳤다.

올해 1월 정기인사 만족도 조사와 비교하면 '만족'이 1.2%p, '불만족'이 2.3%p 각각 줄었고, '보통'은 3.5%p 늘었다.

인사 청령도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의 77.7%가 '매우 우수' 또는 '우수'하다고 답했고, '보통'은 20.3%, '미흡' 또는 '매우 미흡'은 2%로 조사됐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제23조)의 '학교 근무 의무화 폐지(교육행정 7급에 한함)'에 대해서는 반대한다(56.8%)는 의견이 찬성한다(41.9%)는 의견보다 14.9%p 많았다.

또한 보직관리규정(제22조)의 전보승위 평정 기준표의 평정 항목 중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근무 점수 상향(교육행정 7급에 한함)'에 대해서는 찬성 74.7%, 반대 24.6%, 기타 0.7%로, 찬성의견이 반대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이번 설문에서는 또 인사와 관련해 ▲근무 기피에 따른 교육청 근무자에 대한 혜택 ▲근무 기피 학교에 대한 혜택 ▲소수직렬에 대한 다양한 직장 교육 ▲5세 미만 자녀 둔 공무원 학교 근무 우선 배려 ▲승진적체 해소 등의 제안 및 의견이 나왔다.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인사제도 개선 시 참고하기로 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기로 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는 전체 지방공무원 3,550명(휴직자 등 제외) 가운데 9.1%인 322명이 응답했으며, 7월 1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공무원 410명 중 40%인 164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김재훈 기자

## 군산대 새만금창의융합센터, 여름과학캠프로 과학 인재 육성

군산대학교 새만금창의융합센터 생활과학교실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전북 소재 초·중등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8월 16일까지 3주간 여름과학캠프인 '2018 리틀아인슈타인 과학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군산대학교 새만금창의융합센터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 캠프는 1주 단위로 3주간 VR, 로봇, 드론, 코딩 수업이 차례로 실시되었다. 수준별 교육을 위해 초급반·중급반 2개 반으로 나뉘고, 각각 10시간 동안 수업이 이루어졌다.

군산대 새만금창의융합센터 유수창

센터장(군산대 화학과 교수)은 "도내 학생들과 학부모의 과학교육에 대한 뜨거운 호응과 관심에 놀랐다"면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창의 역량 기반의 지역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생활과학교실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청소년 및 주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손쉽게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문화 확산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돕기 위한 대표적인 과학체험 프로그램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